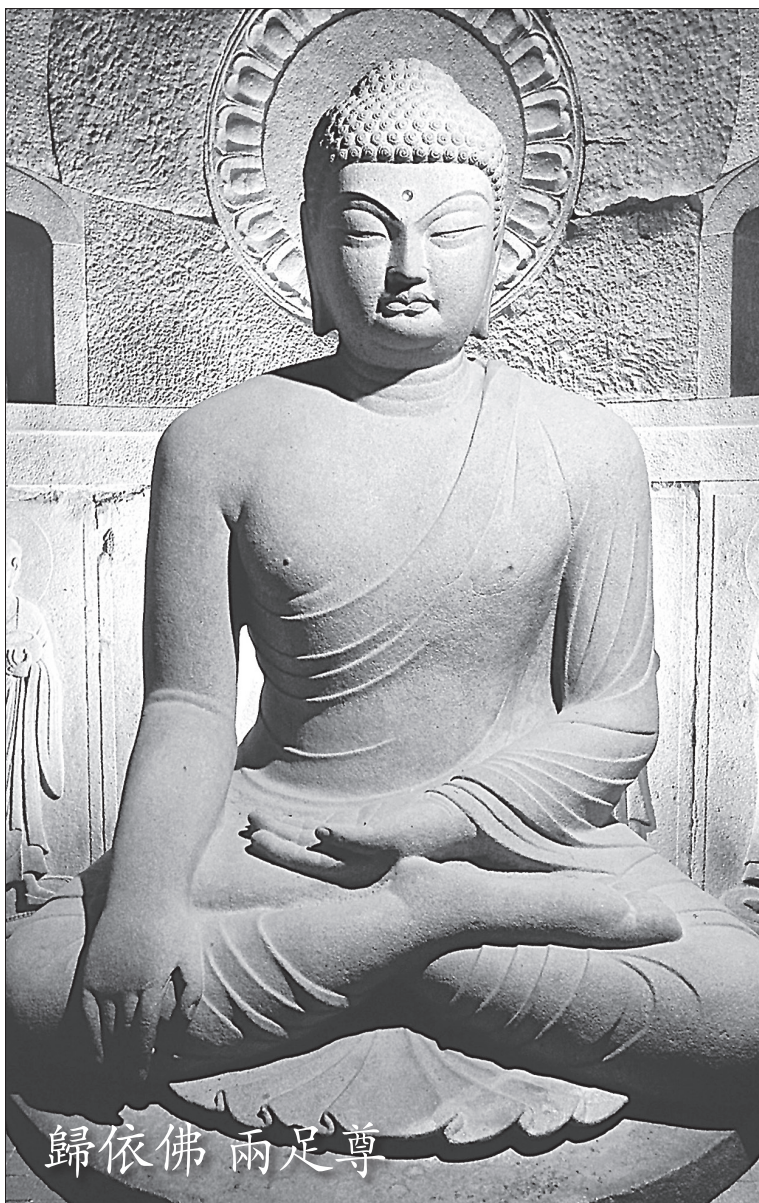




三寶, 불교 신앙 기본... “귀의합니다”

왜 삼보에 주목해야 하나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歸依僧 衆中尊

모든 불교법회는 ‘삼귀의례(三歸依禮)’로 시작한다.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에게 귀의하겠다는 의미의 의식이다.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는 범어로 ‘ratna-traya’, 뽀알리어로 ‘ratana-ttaya’이며, 세 종류의 진귀한 보배, 또는 세 가지 존귀한 보배라는 의미다. ‘불교 신앙심의 예배대상이자 성물인공’과 동시에 해탈성불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의지해야 할 그야말로 보배(정인 스님)가 바로 삼보다.

부처님 열반 이후 원시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불보살의 명호수가 많아지고, 경전량이 방대해졌으며, 교단의 수행체계가 증감에 있었지만, 삼보에 대한 귀의의무는 오늘날까지 출·재가자 모두에게 믿음의 근간이다. 또한 지역적인 북방불교, 남방불교를 초월해 삼보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자들의 귀의처인 삼보에 대한 귀의와 예경의 중요성은 경전 곳곳에서 확인된다. <증일아함경> 제12권 21 삼보품에는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 독원에서 삼보 귀의의 공덕을 모든 비구들에게 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스로 귀의하는 덕(德)에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첫 번째 덕이고, 법(法)에 귀의하는 것이 두 번째 덕이며, 승가에 귀의하는 것이 세 번째 덕이다.

첫 번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가장 존귀하여 더 높은 것 없고 다음으로 또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진다. 현상(賢聖) 대중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복밭(福田)이니 그런 사람은 재일가는 지혜가 있어 제일 먼저 복을 받으리라. 만일 그가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면 대중들 속에서 바른 길잡이가 되고 또한 가장 묘한 자리를 얻어 저절로 감로(甘露)를 마시게 되리라.

몸에는 7보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장 완전한 계를 갖추어 모든 감각기관 세가나 결함 없으리. 게다가 지혜의 바다까지 얻어 열반의 세계로 차츰 나아가리니 이 세 가지에 귀의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세계 또한 어려운 일 없으리.”

삼보는 예경 대상이자 성물
불교의 첫 관문, ‘삼보 귀의’
경전 곳곳 삼보 중요성 설해

삼보사찰, 韓불교 특유 신앙
불교 사상 구심화 작업 필요
구심화, 삼보 중심 이뤄져야

이밖에도 <관무량수경>에서는 “불(佛)의 이름, 법(法)의 이름을 듣고 승(僧)의 이름을 들을 것, 삼보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가운데 불은 불교의 교주로서 일체지인이며, 법은 부처님이 설한 교법을 말하며, 승이란 그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모든 불제자들을 일컫는다”고 했다.

<잡아비담심론> 제10에는 “제불소득(諸佛所得)의 무학법에 귀의하면 귀의불이고 열반 무상법에 귀의하면 귀의법이고 승의 무학무법에 귀의하면 귀의승”이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불자들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세 가지 보배, 삼보에 귀의했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

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는 불교인이 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의례이며 규범이다. 그래서 삼귀의를 삼귀의례 또는 삼귀의계(三歸依戒)라고 하는 것이다.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불교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이 삼보사찰이다. 삼보사찰은 통일신라 전후기에 불사리를 모신 영축산 통도사와 고려 후기에 법사리를 모신 가야산 해인사, 고려시대 16국사와 2왕사를 배출한 조계산 송광사를 중심으로 완성됐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는 말 그대로 삼보를 상징했고, 조선시대 이후 삼보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삼보사찰은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대승불교권 국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찰이다.

붓다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의 적멸보궁은 신라 시대 자장 스님이 진신사리 100과를 전해오면서 비롯됐다. 본래 통도사를 비롯해 상원사, 법흥사, 정암사가 적멸보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1970년대 이후 설악산 봉정암에도 진신사리가 봉안되며 ‘오대 적멸보궁’으로 자리잡았다.

법보신앙은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고구려의 경우 강경(講經)의 상행이, 백제의 경우 율전을 통한 실천 및 주술, 치병을 위한 독경

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신라삼보 개념과 경전의 호국공능 인식 경전신앙의 초기적 형태가 행해졌다.

승보 관련 신앙은 선종의 경우 조사신앙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보 공양을 통해 복전(福田)을 짓는 복전사상의 발전은 대승불교권에서 보지 바리밀의 공덕으로 더욱 활성화됐다.

불·법·승 삼보와 그에 대한 귀의는 불교 신앙의 시작점이며, 불교종흥의 구심점도 삼보에 있다. 불보와 법보의 예경과 교단을 수호하고 지켜가는 승보에 대한 존경은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다시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에 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노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불·법·승 삼보와 불교 신앙’에서 “인류 종교 신앙사를 고찰해 볼 때 각 종교 사상에 대한 구심화와 원심화의 양면적 작업이 요청돼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원심화 작업에는 큰 장점이 있으나 다양성을 하나의 축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구심화 작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는 불교사상의 구심화 작업을 보강해야 하며, 그런 구심화 작업은 1차적으로 불·법·승 삼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佛寶宗刹 통도사

불보종찰인 통도사의 이름은 통도사가 위치한 산세가 마치 인도 영취산 모습과 통하기에 통도사라 불여졌다고 하며(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스님이 되려는 이들이 계를 받는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爲僧者通而度之)

또한 구도를 통한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것이 회통(會通)하고 중생을 제도(濟道)하는 것으로 회향되기에 ‘통도’(通道)라 불리기도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자장(慈藏) 율사가 당나라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신라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통도사를 창건하며, 승단 규범을 관장하고 법식(法式)을 가르치는 등 불법을 널리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장율사는 부처님 마리빠와 어금니, 불사리 100과와 부처님께서 수했던 가사를 이운해왔는데, 가사와 함께 사리 3분의 1을 통도사 계단에 봉안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통도사는 계율의 근본도량이자 신라 승단을 체계화하는 중심지 역할도 했다.

국보 제290호인 통도사 금강계단은 창건의 정신적 근거로 고려 때는 원나라 사신이 참배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통도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산림 또한 활성화돼 매년 수만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보리심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수행과 학업에 매진하는 스님들에게 불자들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수계 10회부터 30회까지 다회 참여한 불자들에게도 메달이 수여된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금강계단에 안치돼 있으므로 전각 안에 불상을 조성하지 않고, 전각들이 금강계단을 향해 배치돼 예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 생지인 인도에서도 이러한 가람배치가 흔한데 인도 고대석굴사원 등에서 통도사의 사리봉안 금강계단과 배전인 대웅전 등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도사는 2018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42차 회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위상도 높아진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도사 금강계단